

	기사	팀장	단장	공
	이정	김	김	람
보도매체	일시	보도크기		

인천일보

경기판

2008년 5월 30일 금요일

화옹호 간척지 레저 휴양도시 개발

도, 건설방안 검토

경기도가 화옹호 일원에 첨단산업단지를 겸한 대규모 해양레저 휴양 복합도시 건설을 검토중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평택, 당진 일원(5천505만㎡)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화옹

호 간척지 일대에 대규모 해양레저 휴양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시화호와 화옹호 등 서해안 일대에 대한 씨벨트(Sea BELT)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도가 이들 지역에 해양레저 휴양 복합도시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

은 서해안과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활용한 대중국 복합경제특구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후보지는 한국농촌공사 소유의 화성시 장덕동 일원 화옹호 간척지. 최소 조성규모는 수백여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지사는 이와관련,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화옹호, 시화호를 포함한) 도내 개발가능한 땅 6억6천116만㎡(2억평)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33억580만㎡(10억평)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화옹호를 방문한 자리에서 화옹호를 경기도가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토지비용이 저렴한 화옹호 일원이 추가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나오는 9

월 이후 농수산식품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옹호 간척지의 면적은 62.63㎢(1천879만평).

도는 이 가운데 일부를 신도시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당초 용도대로 농경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옹호 등지에 조성할 예정인 신도시는 지중해의 고급 휴양레저 복합도시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프랑스 그랑도도의 경우, 늪지대를 세계적인 휴양리조트도시로 개발해 연간 1천460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관광수입만도 연간 45억유로에 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화옹호 일원을 첨단산업과 의료시설, 레저휴양시설이 겸비된 뷰티컴플렉스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곳을 시화호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테마파크, 인천공항과 연계하게 되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